

어린이 마음거울

윤지원 엮음(조계종 포교원장)

나는 향기로운 사람이예요

I am a caring person.



인격 가꾸기

인격은 사람의 품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기원전 322년)는 훌륭한 인격은 바르게 행동하며 사는 것,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윤택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예절을 지키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야말로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이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로 유명한 새뮤얼 스마일스(Samuel Smiles, 1812~1904년)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천재성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재성은 감탄을 자아낼 뿐이지만 인격은 끊임없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갈고 닦고 쌓아 올려야 합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르듯이 꾸준함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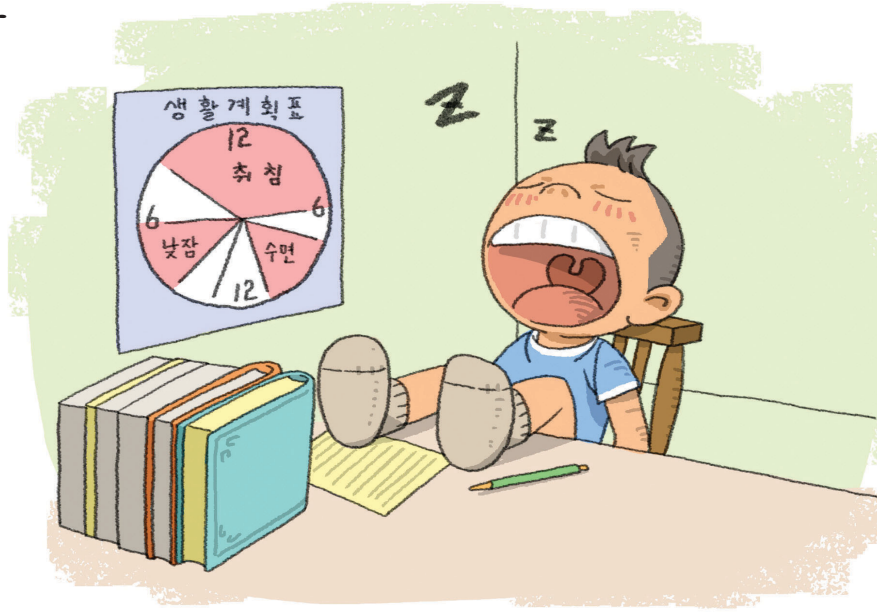
내가 말한 것은 책임지고 지키겠어요

I will always keep my word.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인도의 독립운동가, 1869~1948년)에게 한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 왔습니다.

부인은 간디에게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라며 설탕을 그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간디를 존경하기 때문에 간디가 당부하면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디는 부인과 아이를 되돌려 보내면서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애야,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 그만 먹으렴." 간디의 말에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의 탓을 하기보다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When something goes wrong, I will think about what

I could have done better instead of pointing fingers at others.

도산 안창호(1878~1938년) 선생은 1910년, 정부 대신 이완용 등이 한일 강제병합에 찬성하는 도장을 찍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고 이완용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일본이 내 조국에 손톱을 박을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었고, 이완용이 조국을 팔도록 내가 내버려 둔 탓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안창호 선생뿐 아니라 그 당시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분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지식인들이 한일 강제병합을 임금의 탓으로 돌리거나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잘되면 제 복, 못되면 남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서는 책임을 벗어나고 싶고, 성공한 일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내 잘못이 아닌 남의 실수로 일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창대회에 나갔는데 피아노 반주가 틀리는 바람에 노래도 엉망이 된 경우처럼 말입니다.

남의 탓을 하다 보면 모든 걸 비활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깨우치고 발전할 기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잃은 게 왜 자기 탓이라고 했을까요?
- *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 * 남의 탓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무조건 내가 옳다고 우기지 않겠어요

I will not insist that I am always right.

황희(1363~1452년) 정승은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인 태조 때 벼슬길에 올라 세종 때 정승을 지냈습니다. 청렴하고 사리에 밝은 성품 탓에 임금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세종은 대신들과 회의를 할 때 "황희의 뜻대로 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황희 정승의 집에서 여종들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우기던 여종들은 황희에게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한 여종이 사정을 말하자 황희는 "네 말이 옳구나" 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자신이 더 억울하다며 사정을 말했을 때 황희는 "네 말도 옳구나" 했습니다. 옆에 있던 조카가 "숙부님, 둘 다 옳다고 하시면 잘하고 잘못된 걸 가려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황희는 "네 말도 옳구나"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황희는 억울해하는 여종들의 심정을 헤아려 둘 모두를 위로

해 준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 여종 모두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자기 것만이 최고이고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최고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진리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헤아려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일이 더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틀리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맞아', '너는 틀려' 라는 생각보다 '아하,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 방법도 좋은데'와 같은 생각이 친구와의 사이를 한층 부드럽게 해 줄 것입니다.

- * 무조건 옳다고 우긴 일이 있나요?
- * 여러분이 우겼을 때 주변 사람의 반응은 어땠나요?

니다. 부인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일주일 전에는 왜 그 말을 해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인, 일주일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디는 아이에게 충고의 말을 해 주기 위해 일주일 사이에 설탕을 끊었던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디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한자로는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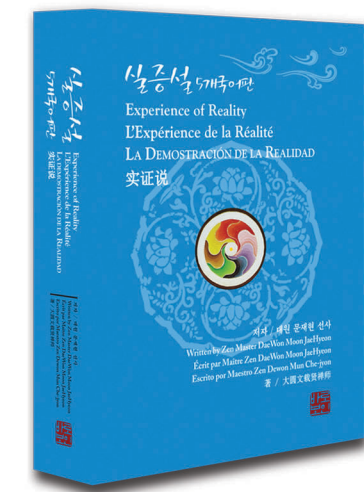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은 따로 합니다. 이렇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보여서 남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 * 간디의 이야기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 여러분은 말은 쉽게 하고 지키지 않은 일이 있나요? 왜 그랬나요?
- *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원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으니 대원문재현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신간! 실증설 5개 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찌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